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가톨릭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가톨릭 성가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가톨릭 성가 115번> 주 예수 바라보라

제 1독서 | 이사야서 50,4-7

화답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 비를 뿜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 필리피 2,6-11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마태오 26,14-27,66



##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이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사순 제6주일이자 성주간의 시작입니다. 전례력상 가장 독특한 미사 구조를 지니

### 십자가를 향해가시는 그리스도 - 오늘의 전례 안내

사순 시기가 무르익을 무렵, 교회는 성주간 전례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부활의 기쁨을 길어내기 위한 십자가 여정을 떠납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주간의 전례를 특별한 양식으로 준비하는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마치 생생하게 목상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합니다. 이 예식에서는 주님의 겸손한 행렬, 당신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당신을 환호하며 흔드는 나뭇가지 등과 같은 '감각적인 표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신자들이 이를 바라보고 만지고 감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목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미사 거행에 참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요한 19,37 참조)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죄의 창검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찌르기도 했고, 지금도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호하던 이들과 “십자가에 못 박시오.”라며 격분하던 이들이 알고 보니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요.

축복받은 나뭇가지는 이를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호하지만, 죄를 지어 주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는 미사 중 하나인데, 미사 시작 전 성지 축복과 행렬이 먼저 거행된 후, 본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수난 복음이 봉독됩니다. 기쁨의 환호로 시작해 십자가 죽음의 목상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전환이 이 날 전례의 특징입니다. ‘성지(聖枝)’는 종려나무 잎이나 올리브 가지가 전통적으로 쓰였으며, 한국에서는 주로 사철나무나 대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환호하며 흔든 것도 종려나무 가지였는데, 당시 이는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이 주일의 공식 명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이후 ‘성지 주일’에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입성의 기쁨만이 아니라 수난의 의미를 함께 담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례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전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히 성주간을 시작해 보세요!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토록 나약하기에 당신께서 몸소 십자가를 자원하여 끌어안으셨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후, 각자가 손에 쥐고 흔들던 성지를 집으로 가져가 십자가상 뒤에 잘 맞추어 걸어둡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형상을 볼 때마다 주님을 환호하던 그때 손에 들었던 성지도 함께 바라보며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들으면, 이런 취지와 달리 성지가 미신적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수를 뿌려 나뭇가지를 축복했다고 가지 자체가 신성을 띠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축복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의 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축복예식 총지침 12항 참조) 성지 축복기도문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신비를 완성하려고 반드시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 달면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님께서 언제나 편하게 입성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 손희송 주교님

● 지난 3월 10일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구약성경의 시편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는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내 손에 전투를, 내 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이란 표현을 인용했다.

그러자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죄에 속한다."라고 반박하면서, "하느님은 분쟁 속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계시지,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질문의 배경에는 구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내용이 서로 대립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하느님을 계시하는 책이지만,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실현이다. 계시의 정점은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정점을 근거로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적 성경 해석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비폭력의 하느님을 선포하시고, 자신도 철저히 비폭력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폭력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이다가도 어떤 때는 폭력적이고 피를 요구하는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성경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하느님이 그 내용을 불러주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쓴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인 동시에 인간의 글이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 시대 인간의 문화와 생각을 바탕으로 쓰인 글로서 그 속에서 하느님의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런 전제하에 어떤 신학자(스위스 태생 예수회 소속 인스브루크 신학대학 교수 라이문트 슈바거, 1935-2004)는 성경에 드러난 하느님의 '폭력성'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인간에게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는데, 이것을 하느님께 투사시키고는 했다. 인간 자신이 폭력에 물들어 있어서 폭력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느님 역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서서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자비로운 하느님과 폭력적인 하느님 모습이 혼재해 있다. 이런 불명확함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난다.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항하지 말라고 하셨고(마태 5,38-42 참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을 선포하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태 5,43-48 참조). 또한 그분은 체포되는 순간에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폭력을 거부하신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마태 26,52). 십자가상에서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느님께 간청하셨다(루카 23,34 참조)>.

● 미국의 보수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 구미에 맞는 구절을 신약과 구약 가리지 않고 뽑아내어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고는 한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철저히 비폭력을 추구하셨던 예수님을 하느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성경의 일부 대목을 근거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 3월 1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만으로는 무자비한 적을 맞설 수 없다고 하면서, 역사학자 윌 듀런트를 인용하여 "역사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칭기즈칸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그렇게 막강했던 칭기즈칸의 제국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그에 반해서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때로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역사의 승자인가?

## 공지 사항

### 1. 성당 공동체 가족 정보 조사 안내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친교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성전 앞에 있는 표를 가족 단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성함, 세례명, 생일, 축일, 소공동체 반

### 2. 부활대축일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 안내

부활대축일(4월 5일)을 앞두고 부활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께서는 정성껏 꾸민 **삶은 계란 3개 이상**을 꾸민 후에 작은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 **부활대축일 당일 제대** 앞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회 분들의 투표를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소정의 상품이 드리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3. 성주간(Holy Week) 전례 안내

#### <한인성당 미사>

- 주님 수난 성지주일: 3월 29일(주일), 3:00PM
- 성 목요일 주님만찬미사: 4월 2일(목), 7:00PM

(\* 발 씻김 예식 참여시, 수건 지참)

-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5일(주일), 3:00PM

(부활대축일 후 교육관에서 식사나눔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컬 영어 미사>

\* 성금요일 예식과 파스카 성야는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페이지 성당(St. Matthew)**에서 영어미사로 봉헌됩니다.

주소: 12 Chewings Street Page, ACT 2614

- 성금요일 수난예식 : 4월 3일(금), 3:00PM
- 파스카 성야 미사 : 4월 4일(토), 7:00PM

###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 <3월: 군비 감축과 평화를 위한 기도>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 봉헌금 & 교무금 | (3월 21일 ~ 3월 27일)

봉헌금	\$ 170			
교무금	\$ 410			
구민식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